

[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동물의 권리를 동물권으로 일컫듯이 우리는 자연의 권리를 자연권으로 줄여서 쓰기도 한다. 인간 행위의 산물로서 인공적인 것과 대비되는 것은 자연적인 것이라 부르는데, 그 중 하나가 자연권이다. 그런데 자연권, 즉 자연적 권리란 인간의 천부인권을 가리키므로 ‘자연적’ 권리와 ‘자연의’ 권리는 구별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형용사가 들어갈 자리에 명사가 들어갔을 때 주체로서 자연이 가지는 권리란 무엇인가? 자연은 생태계 전체를 말하는가, 아니면 산이나 바다 따위의 개별적 자연물만을 의미하는가?

“비인간적 존재자가 법적 권리를 가질 수 있는가?”는 권리 담론에서 핵심 문제로 논의되고 있다. 넓은 의미에서 자연은 인간 중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논의를 위해 자연의 정의는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자연은 동물과 같이 쾌고감수능력을 가진 유정적 존재자와는 다르다고 봐야 한다. 또한 물리적으로 실체를 가지지 않으면 존재자가 아니므로 기상현상과 같이 일정한 영역을 점유하지 않는 것은 자연이라 보기 어렵다. 한편 권리 또한 자연처럼 애매함을 드러내고 있다. 권리 분석의 토대를 마련한 호펠드는 가장 일차적인 의미로서의 권리, 즉 청구권 외에도 자유, 권한, 면제와 같이 서로 상이한 내용을 가진 법적 지위를 구별하였고, 법적 관계는 한 쌍을 이루는 서로 다른 두 종의 법적 지위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이때 자연적 존재자가 가지는 것은 어떤 종류의 규범적 지위인가? 만일 그 지위가 자유라면 인간의 방해로 배제시키는 청구권까지 결합된 ‘보호되는 자유’인지, 반대로 단순히 행위의 허용을 말한 뿐 그러한 의무를 부과하지 못하는 ‘헐벗은 자유’인지 따져보는 작업이 중요하다. 먼저 권한은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려는 의사표시를 전제하지만, 자연적 존재자들에게 그러한 능력이 없다. 다음으로 자유는 타인에게 의무와 같은 제약을 부과하지 못한다. 면제의 경우 타인에게 권한이 없는 상태를 부여하지만 청구권이 없으면 권리 침해 상황에서 구제를 요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자연의 권리에 관한 논제에서 자연은 청구권 요소를 포함한 법적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최근 자연의 권리 운동은 비단 담론의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헌법이나 법률을 통해 입법까지 되고 있는 실정이다. ㉠ 다수의 견은 자연적 존재자도 법에서의 인(人)이 될 수 있기에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이는 법적 인격이 곧 권리의 주체라는 서구의 통설적 견해에 바탕을 둔다. 다른 한편으로 자연적 존재자가 어떤 내용의 권리를 가지느냐의 문제도 논란이 된다. 조셉 라즈는 본래적 가치를 가지는 자연물이 고유한 이익을 가지므로 그 이익이 인간에게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충분조건이 된다고 본다. 라즈와 같은 ㉡ 이익설 옹호론자에 따르면 존재자의 이익이 궁극적 가치를 지니거나 그 존재자가 단체 또는 회사와 같은 인공적 인격인 경우에만 권리 능력이 인정된다.

㉢ 쿠르키는 자연의 권리를 옹호하는 것을 목표로 호펠드적 분석에 기반하여 자신의 주장을 전개했다. 특히 쿠르키의 법인격성 다발이론은 호펠드로부터 이어진 다발이론을 전승한 사례로 볼 수 있다. 호펠드-오노레 다발이론은 법적 개념을 일종의 ‘뭉치’로 보고, 그것은 복수의 상이한 권리의무 요소로 분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쿠르키에 따르면 법적 인격은 권리의무 요소들의 다발이다. 그는 이러한 생각으로부터 법인격성을 권리주체성, 즉 권리 능력과 동일시하는 관점을 부정한다.

4.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법적 인격과 권리 능력을 동일시하는 입장은 자연적 권리를 가진 존재자에게 인공적 인격이 부여된다고 본다.
- ② 동물의 권리는 인정하지만 자연의 권리를 부정하는 입장은 자연적 존재자가 쾌고감수능력을 가질 수 없다고 본다.
- ③ 인간이 아닌 존재자의 법적 권리 여부를 논하기 위해 자연의 범위를 개별적 자연물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 ④ 호펠드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관계에서 법적 관계를 이루는 두 청구권의 법적 위계가 각각 다르다고 볼 것이다.
- ⑤ 면제권만을 보유하고 있어도 규범적 제약을 타인에게 부과하기만 하면 권리 침해 상황에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5. 글쓴이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비인간적 존재자는 인격적 존재자와 마찬가지로 법적인 권리주체성을 가져야만 한다.
- ② 지리적 공간을 점유하지 않고 쾌고감수능력이 없는 존재자만을 자연물로 정의해야 한다.
- ③ 청구권은 자연권과 달리 주체의 의사 능력을 전제하지 않아도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 ④ 개별 자연물들은 자연의 권리에 관한 논제에 의해 언제나 헐벗은 자유를 보장받는다.
- ⑤ 자연의 법적 권리는 도덕원리에 문제이기에 자연권의 존립을 위해 입법과 같은 제도적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입장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A] 일반적으로 법적 인격을 보유한 존재자보다 법적 권리를 가진 존재자가 더 많다.

[B] 어느 마을에서 축제가 열렸는데 강에 쓰레기가 매립되자, 강폭이 좁아지고 강물이 범람했다. 이 경우 쓰레기를 버린 주민들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복잡한 일이다.

[C] 다른 예외가 없다면 자연의 법적 권리는 보호되어야 한다.

[D] 회사도 인격을 가지는데 자연물이라 해서 안 될 이유는 없을 것이다.

[E] 어떤 존재자는 법적 인격이 없는데도 법적 권리의 보유자이기도 하다.

- ① [A]에 대해 ㉠은 동의하겠군.
- ② [B]에 대해 ㉡는 동의하지 않겠군.
- ③ [C]에 대해 ㉠과 ㉢은 모두 동의하겠군.
- ④ [D]에 대해 ㉡와 ㉢은 모두 동의하겠군.
- ⑤ [E]에 대해 ㉠은 동의하지 않고 ㉢은 동의하겠군.